

2009 판 텍스타일 페어에서 에코 소재·고기능 소재를 어필

대만 텍스타일 업계는 판 텍스타일 페어(Pan Textile Fair)를 일본 오사카에서 2009년 11월에 2일간 개최하였는데, 점차 일본 섬유 업계와 만남의 자리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에콜로지(ecology) 소재, 항균 방취(抗菌 防臭)나 축열 보온(蓄熱 保溫) 등의 많은 고기능 소재들이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 일본에서의 페어는 일본과의 교류 촉진에 베스트 스페이스가 돼

대만 텍스타일 업계는 이 페어에 따른 상담회(商談會)를 가짐으로써 대만과 일본 섬유업자가 서로 교류를 늘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상품 개발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만 섬유 업계는 기술 수준, 품질 수준을 일본 업자에게 알려주려는 속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으로서 일본 섬유 시장에서 대만 제품의 지명도를 올리고 그 효과에 따라 무역량을 늘리고 미국 등 일부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수출 대상을 분산시켜 대만 업계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획도 있다.

대만 업계로서도 일본은 버블이 터진 후로도 장기간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소비 수준이 최고인 나라이다. 산아 제한(産兒 制限), 고령화(高齡化), 인구 감소, 지구 환경 문제 등을 배경으로 일본 소비자는 더욱 상품 선정에 시간이 걸리고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은 싼 상품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대만 기업이 그러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250억 달러나 섬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 시장은 대만 섬유 업계에 매력적으로 비쳐, 대만은 이 시장을 개척하고자 패션과 기능(機能 : function)을 중요시한 섬유 제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2007년도 대만 통계에 의하면 대만 섬유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한 실적은 3억 7,700만 달러였다. 그 내역은 섬유 원료가 4,100만 달러, 실이 1억 6,500만 달러, 패브릭(fabrics)이 1억 2,200만 달러, 어패럴이 1,600만 달러, 기타 섬유 제품이 3,100만 달러였다.(이들 금액은 어림수이므로 합계는 맞지 않음)

◎ 출품 각사의 새로운 개발 소재들 소개

관 텍스타일 페어에 출품한 기업에 대하여, 출품 직전에 취제한 에콜로지나 하이테크(high-tech)를 테마로 새로 개발한 상품들을 소개한다.

◎ 대원 방직 - 고기능 면직물을 주로 개발

대원 방직(台元 紡織)은 판매고가 40억 위안(元)을 밑도는 규모의 기업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능 소재와 에코 섬유로 두 개의 큰 테마를 보여 주고 있다. 기능 소재로서는 투습 방수(透濕 防水), 방오(防汚)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면직물에 멤브레인(membrane : 얇은 膜)을 접착시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낸 것이 많다.

에코 섬유(ecos 纖維)에는 터키산(turkey産)의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이 있으며 네덜란드(Netherlands)의 컨트롤 유니온 인증(Control Union 認證)을 받아 자신감을 확실히 갖고 있다. 자가 공장에서 방직하고 있는 텐셀(Tencel)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 삼영 방직 - OE 정방을 살린 상품들

삼영 방직(三永 紡織)은 슬라포스트(Schlafhost)의 오토코로(Autocoro : Open End 精紡機) 설비 35대로 월 2,600 톤의 면사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 90%가 데님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링(ring) 방직은 모두 폐기하고 OE 방직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 대응력과 품질에는 자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醫療)용 장갑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 봉예 - 유니폼 등의 방오 가공 소재가 특징

봉예(峰羿)는 환경 보호를 테마로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사(recycle 絲)를 사용한 텍스타일을 판매하고 있으며, 유니폼이나 스포츠 웨어가 장기로 알려져 있다. 레스토랑 유니폼을 판매하던 실적이 있으므로 특히 방오 기능(防汚 機能) 가공 소재가 특징이다.

◎ 예인 국제 - 니트 프린트를 전업으로

예인 국제(譽仁 國際)는 로터리 머신(rotary machine)과 플랫 스크린 프린트기(Flat Screen Print機)를 갖고 있는 프린터 회사이다. 관 텍스타일 페어에는 처음으로 출품하였다. “고객의 80%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시장을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신규 시장으로서 포털 플리스(Poral Fleece)에 다채롭게 프린트한 텍스타일로

뚫고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 화우 방직 - 스트레치와 에코를 제안

화우 방직(和友 紡織)은 어패럴용과 산업 자재용의 두 분야로 제안하고 있다. 어패럴용에서는 스트레치, 에코(eco)와 경량 소재가 테마이다. 셔츠 소재도 출품하고 있다. 에코에서는 코코넛(coconut) 섬유인 ‘코쿨’을 소개하고 있다. 산업 자재로서는 가방 등의 용도가 포인트이며 리사이클 소재도 준비하고 있다.

◎ 정봉 - 특수 염색한 오리털을 나일론으로 짜준 상품으로 특허 받아

정봉(庭鋒)은 특수 염색한 오리털을 반투명한 나일론 직물로 짠 상품으로 일본의 실용신안(實用新案)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이나 한국 등에서도 특허를 받고 있다.

◎ 미쓰코시 방직 공업 - 방직·제직 일관 시설로 텐셀·데님 등 제안

미쓰코시 방직 공업(三越 紡織 工業)은 2만 추의 방직 설비와 쓰다고마(津田駒)의 에어젯 직기나 소멧(Somet)의 래피어 직기 등의 직포 설비를 갖고 있어 방직 일관 기업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흡습 속건(吸濕 速乾), 로 필링(low pilling), 항균(抗菌), 쿨링(cooling), 텐셀(Tencel)의 5개 분야를 제안하였으며 4년만의 출품이다. 8.5온스(ounce) 데님과 텐셀 70% · 코튼 30%의 데님 등을 소개하고 있다.

◎ 부승 방직 - 환경 소재인 에코 백이 호조 보여

부승(富勝 紡織)은 리사이클 섬유(recycle 纖維)를 철저하게 상품화하고 있다. 일본의 큰 규모 백화점의 에코 백(eco-bag)으로 채용되는 등 환경 소재가 주목을 받아왔다. 구두끈이나 신발주머니 등에도 에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환경 보호는 우리 회사의 영원한 테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이릉 섬유 - 나고야의 연줄로 일본 시장 개척에 성공

이릉 섬유(理隆 纖維)는 3년 전에 실(yarn)만으로 전시회에 출품한 바 있는데, 그 후로 다키히요나 크로스 플러스와 같은 나고야(名古屋)의 큰 기업과 거래가 이루어져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하였다. UV컷(Ultra Violet cut : 紫外線 遮斷), 흡수 속건(吸水 速乾), 항균(抗菌), 리사이클(recycle : 廢棄物의 再生 利用) 폴리에스터 등의 기능성 소재도 내놓

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 회사으 니트사, 팬시안을 사용한 어패럴도 전시하여 관람자의 주목을 끌었다.♣